

# “차와 선 한 맛에 젖으니 여기가 극락”

### 경봉 스님 탄신 120주년, 통도사 극락암 극락선차 시연회 다향 정신 잇는 경봉선풍중진불사회 기념사업 일환

차(茶)와 선(禪)은 ‘다선일미(茶禪一味)’ ‘선다일미(禪茶一味)’라 하여 같다고 말한다.

입안을 감아 도는 차맛과 차향을 통해 ‘다선일미’의 참뜻을 어슴푸레 느낄 수 있다면, 차도 알고 선도 알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아닐까?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에서 4월 3일 열린 다도 시연회가 바로 그랬다. 경봉선풍중진불사회가 선보인 ‘극락선차 삼소다회’는 통도사의 빼어난 선지식이었던 경봉 스님(1892-1982)의 탄신 120주년과 열반 30주년을 기념해 스님의 선풍과 다맥을 소개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통도사는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천년고찰이다. 통도사 경내를 중심으로 영축산 자락을 휘감아 도는 소나무 사이 너른 들에는 연밭 차나무밭 등이 있다. 스님들이 천년 넘는 세월을 가부좌를 틀고 수행해 왔으니, 또 너른 벌판에 차밭이 있으니 다도라 불릴 것이 있음은 당연하다.

극락암에 오르니 통도사 대중스님들이 왜 이곳을 ‘극락’이라 부르는지 알만 했다. 숲속 굽이진 비탈길을 돌고 돌아 만나는 작은 암자, 눈앞에 펼쳐진 동화 속 같은 아름다움은 눈비 섞인 가운데 휘몰아치는 일진광풍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극락암은 경봉 스님이 50여 년간 머물다 입적한 곳이다. 스님은 이곳에서 깨달았고, 이곳에서 후학을 제정하고, 이곳에서 긴 고요함에 들었다. 경봉 스님의 극락암 생활은 순간순간이 모두 수행이었고,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문화로 남았다. 스님이 시(詩)·서(書)·화(畵) 삼절(三絶)에 선(禪)·차(茶)까지 오절(五絶)을 갖춘 대선사(大禪師)라 불린 까닭이다.

시연회는 경봉 스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삼소굴에서 열렸다.

1927년 11월 20일 새벽, 경봉 스님은 촛불이 바람에 춤추는 듯 흔들리는 것을 보는 순간, 눈앞이 환해짐을 느꼈다. 깨달음이었다. 그때의 법열을 스님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 겹겹이 이해야 만나 의혹 없어 지니/ 우당화 꽃빛 은 누리에 흐르네. (我是訪吾物頭/ 目前即見主人樓 / 呵阿逢着無疑惑 / 優鉢花光法界流)”

삼소굴 내에는 ‘일기일회(一機一會)’라는 스님의 선구(禪句)가 붙어 있다. “기회는 지금뿐이니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스님의 글로 마음의 때를 씻어냈다면 삼소굴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놓인 물향아리에 손가락을 적서 몸을 깨끗이 할 일이다. 다도는 경봉 스님의 영정에 합장하고 전각 안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본격 시작된다.

시연에는 원행 스님이 팬주(팬자는 사람)로 나섰다. 스님은 고려대장경 ‘청규’에 나와있는 수십여

다도법을 실제와 비교해 새로 정립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문화재급 진귀한 다관에 양산 통도사·나주 운흥사 등에서 제다된 차로 시연했다. 순서는 녹차를 시작으로, 발우 공양, 황차, 극락선차를 선보였다. 녹차 시연에는 토우선생의 다관, 명나라 자주요 철회 찻잔, 청대 주석 잔받침, 고려 청자 자호, 청나라 출산석가도가 그려진 차척이 사용됐다.

공양에는 굴림만두 썩국, 봄나물 무침, 연근찜, 능이초화 등 사찰음식이 발우와 송·원대 그릇에 제공됐다. 황차 시연에는 1930년대 제작된 은제 당관, 청나라 청화백자 찻잔, 고려시대 청자 연화 퇴화문 차호, 고려 연봉형 순가락 등이 사용됐다.

극락선차가 시연된 네 번째 음식에는 청대 자사다관, 청화백자나한도가 그려진 찻잔, 청대 주석 잔받침·차통·삼우도차척·주석만자문 등이 쓰였다.

극락암 도감 해원 스님은 “차 맛이나 격식을 따지려는 자리가 아니다. 이번 행사는 지금 여기 살아가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차를 대접하며 선담(禪談)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팔각화로 위 물주전자에서 물이 끓자, 원행 스님이 끓는 물을 다관으로 옮겼다. 스님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가장 맛있는 차를 우려낼 수 있는 온도를 손끝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차통의 차를 대나무 차척에 덜어 차를 우려냈다. 첫 잔을 건넸다. 입안에 차향이 그윽하다. 두 번째 잔은 속우에 내놓아졌다.

해원 스님은 “잔에 다시 따르지 않고 속우에 내놓음은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모두 나눠 마실 수 있도록 각자가 배려해 스스로 양을 조절해 직접 따라 마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순서는 발우 공양. 흰 쌀밥, 썩국, 봄나물 등 반찬이 담긴 발우 세 개가 각자 앞에 놓였다. 오신채(五辛菜)를 뺀 사찰음식을 떠편 산천의 봄내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이러 녹차를 발효한 황차가 내려졌다. 황차는 끓는 물에 바로 넣어 끓여 먹어도 돼 녹차보다 간편하다. 때문에 유학자들도 즐겨 마셨다는 것이 원행 스님의 설명이다.

시연회는 극락선차를 끝으로 회향했다. 극락선차는 극락암에서 기른 우전(雨前)을 깊이 우려낸 것으로 맛과 향이 깊기로 유명하다.

극락선차 삼소다회 시연은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경봉선풍 중진불사회는 극락선차 삼소다회를 정기화해 일반 대중도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삼소굴 큰 방 한편에는 경봉 스님이 적은 글이 걸려 있다. 이것이 ‘다선일미’의 참 뜻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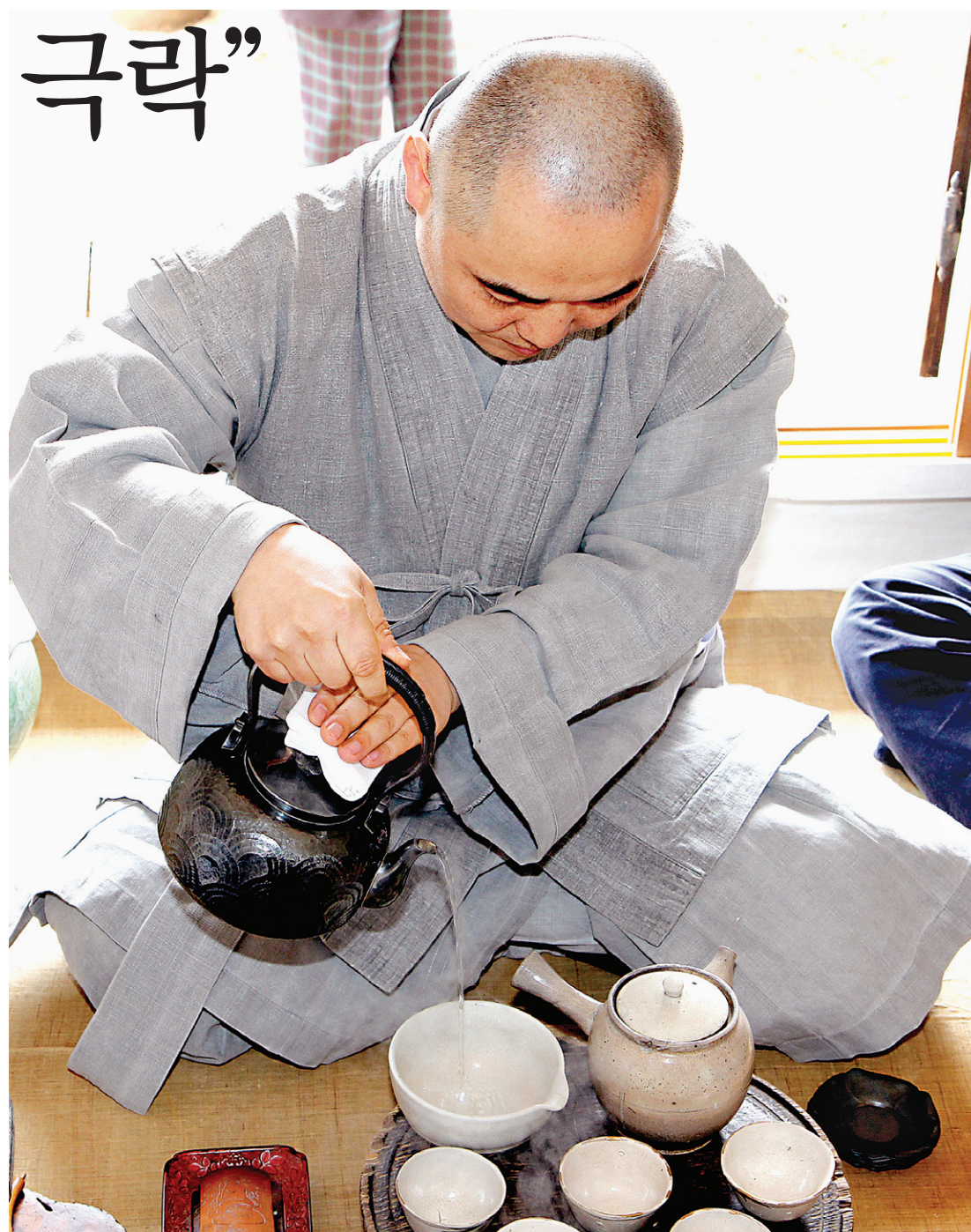
밥 먹고 차 마시는 살림살이가/ 일상 삼매의 소식이라./ 이 소식을 알겠는가/ 차. (喫飯喫茶人生/ 日常三昧之消息/ 會得麼 / 茶)

통도사=조동섭 기자 cetsana@hyunbul.com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 모셔진 경봉 스님(1892-1982)의 진영

녹차-발우공양-황차-극락선차 순  
공양은 썩국과 봄나물 무침  
경봉 스님의 ‘오절’ 삼매 소식  
극락선차 삼소다회서 정례화 예정



원행 스님이 4월 3일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서 극락선차 시연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녹차를 우려기 위해 물을 따르는 모습. 스님은 대장경 청규에 나와 있는 다도법을 새로 정립했다.

## “茶는 지친 수좌들에게 정신적 등대”

### 통도사 극락암 선원장 명정 스님

“경봉 스님과 주로 무슨 차를 드셨습니까?”  
“곡차”  
“차 한잔 더 주십시오.”  
“그럼 돈 내라.”

조주 스님은 불법의 대의를 묻는 후학에게 차나 마실 것을 권했지만, 극락암 선원장 명정 스님은 달랐다. 대중의 물음에 주저없이 터져 나오는 스님의 선기 어린 즉답은 삼소굴에 걸린 ‘일기일회(一機一會)’가 분명했다.

경봉 스님의 ‘선다일미’ 경지는 스님을 20여 년간 시봉했던 극락암 선원장 명정 스님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고회의 스님은 상좌의 시봉을 받는 세납임에도 여전히 큰스님의 효상좌로 남기를 자임하는 선지식이다.

명정 스님은 “젊어서 불국사선방에 살 때 하루 세 시간만 자면서 가행정진(加行精進)을 했다. 당시 차는 피곤에 지친 수좌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정신적 양식이었다. 차가 없는 잠선은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가부좌 틀고 앉아 공부하기도 바빴던 때라 그냥 차 한 움큼을 집어넣어 우려 먹고 공부했다”며 극락암 원광재(圓光齋)를 가득 채운 손님들을 위해 선방에서 했을지라도 텅빈 차를 우려냈다.

대중 우려낸 듯했지만 차 맛은 달랐다. 쉬위 보인다고 명정 스님의 다법을 따라했다는 속 버리기 십상이다.

명정 스님에게 물었다.  
“극락선차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봉 스님 계시던) 당시에도 차 마셨지, 안마



명정 스님이 경봉 스님 당시의 해계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뒷면의 ‘정식’ 편액은 만해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써준 글씨.

시켰나.”  
극락암을 나서는 길, 상좌 해원 스님의 “명정 스님 차는 마시고 서너 시간 지나도 그윽하게 향이 올라온다”는 말처럼 차 향기가 입안에 그윽했다. 스님과 주고 받은 문답 역시 차향과 같은 향운을 전했다.  
조동섭 기자

#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어색기등		펜트케이블등		주름등		양진기등
	칼라카사등		영가등		극락왕생		극락왕생
	풍단등		극락왕생		극락왕생		극락왕생

전선(케이블) 연동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동 설치도 바쁜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동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